

코스모화학, 황산코발트 공장 건설

700억원 투입 2차전지 기초소재 5000톤 생산 ... 2011년 하반기 가동

코스모화학(대표 백재현)이 울산에 2차전지 기초소재인 황산코발트 공장을 건설한다.

울산시와 코스모화학은 7월20일 2차전지 기초소재 사업의 전략적 투자와 지원에 관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코스모화학은 700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1만㎡의 부지에 황산코발트 5000톤 공장을 건설해 2011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코스모화학이 황산코발트를 상업화하면 수입대체 효과가 1000억원에 달하고 100여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코스모화학의 황산코발트 투자는 리튬2차전지 생산공장을 건설한 SB리모티브 등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울산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아 고속 성장하는 2차전지 세계시장도 선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코스모화학은 현재 온산과 인천공장에서 잉크, 페인트, 자동차 도색재 원료인 TiO₂(Titanium Dioxide)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20>